



### 어린이 '눈높이 클래식'

'해설과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23일 문예회관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해주려는 부모들은 많지만 지역에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딱 맞춘 클래식 음악회를 접하기는 어렵다. 그런 탓에 성인들을 위한 레퍼토리로 짜여진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음악회는 고역이다. 이를 지켜보는 어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했던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사진)씨가 두번째 공연을 준비했다.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부에서는 '신동'으로 불렸던 모차르트가 6세 이전에 만들었던 피아노 소품곡 1~5번까지를 들려주며 어린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은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



한다. 또 포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작곡한 모음곡 '폴리'를 김시운(블로초 4년)양과 함께 선사한다.

2부 무대는 빨랑의 '아기코끼리 바바'가 장식한다. 사냥꾼에게 엄마를 잃은 아기코끼리 바바가 도시에서 이런 저런 모험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왕이 된다는 장 드 브루노프의 원작을 읽은 작곡가 빨랑이 직접 만든 곡이다.

특히 이 무대에서는 연극인 김종필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라도 배경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안재훈 감독

## "첫사랑의 설레임 느껴보세요"



광주극장서 8월3일까지 상영  
손으로 그린 10만장 작화작업  
기획부터 완성까지 11년 걸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을 학창시절의 고민과 풋풋한 첫사랑의 애틋함을 그린 감성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감독 안재훈·한혜진)이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극장에서 안재훈 감독을 만났다.

영화의 배경은 1970년 말. 성장통을 겪는 18세 소녀 '이랑'과 꿈 많은 동갑내기 소년 '철수'의 가슴 뛰는 첫사랑을 명랑한 웃음과 서정적인 감성으로 그린다.

극장에서는 영화 '러브 스토리'가 한창이고, TV에서는 프로듀서 김일 선수가 등장해 유쾌한 박치기를 날린다.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와 아닌 쪽지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서울에서 전화 온 예쁜 여학생을 보기 위해 교실 앞을 기웃대는 남학생들의 모습에도 미소가 지어진다.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신세대에게는 흥미를 주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영화는 부부인 안재훈 감독이 기획부터 제작, 완성까지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만 장의 작화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전라도의 모습은 낮은 산과 소박한 건물들로 비친다. 타자기, 전축 등 소품 하나하나까지 영화 못지 않은 리얼리티

를 자랑한다.

"저도 겪었고, 관객들도 겪었을 그런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획하고 자료 조사하는데 보냈습니다. 스텝들과 전국을 돌며 70~80년대 풍경을 간직한 곳을 찾다녔습니다. 해남 땅길마을, 순천 갈대밭, 군산 철길 마을, 전주 기전여고, 춘천호 등 안가 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제작비가 부족해 버너를 들고 속삭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 녹아든 안재훈 감독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공감대를 더욱 자극한다. 첫 데이트에서 철수가 "나 여자에게 돈 쓰는 거 처음이다"라며 음료를 건네는 장면, 서울 소녀 수민의 시 중 "서른셋에는 자살할 거야"라는 부분은 모두 안재훈 감독의 추억을 깎아낸 것이라고 한다.

"처음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썼는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인어공주'와 '아내가 결혼했다' 등의 시나리오를 쓴 송혜진 작가를 찾았죠. 그래서 송혜진 작가의 제안으로 과거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후회스러웠던 경험과 추억이 영화에 투영돼 더 애정이 갑니다."

영화는 이랑과 철수가 마지막 기차여행

을 통해 성장통을 이겨내고 서로 꿈을 찾으면서 끝난다.

그리고 이랑이 "일등은 기분 좋은 거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꿈들이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마지막 대사를 선물한다.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꿈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감독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를 위해 들인 시간에 비하면 상영관은 20여 개에도 못 미친다.

"저는 정성을 담은 방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스텝들은 가진 게 종이와 연필뿐입니다. 잠은 안 자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개봉할 수 있다는 '희'

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지금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밀려 배급과 상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쉽기만 합니다."

감독은 이날 관객들은 만나기 위해 낯선 처음 광주를 찾았다.

"광주는 5·18이라는 아픈 과거를 간직한 곳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선욱의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를 읽고 광주를 담고 싶은 작품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광주 관객들을 만나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8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8월 3일까지 광주극장. 문의 062-224-585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남 땅길마을, 군산 철길마을(사진 위), 전주 기전여고(아래) 등 빼어난 전라도의 풍경이 만화 곳곳에 녹아있다.

###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왜 필요한가

서일권씨 초청, 오늘 광주국제교류센터서 강좌

착한 소비와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주 전남대 영문과 교수)는 19일 오후 7시 광주국제교류센터(전일빌딩 5층)에서 서일권(사진)씨를 초청해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이라는 주제로 국제이해강좌를 연다.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씨는 이번 강좌에서 공정무역이 왜 필요하며, 착한 소비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매일 광주외국인호텔(Feel@Home) 호스트가정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26-2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청년 작가 발굴·육성을 위해 2012년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4명을 뽑는다.

광주지역 미술대학이나 일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작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2012년 1월 17일~2013년 1월 15일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창작을 할 수 있다. 또 창작센터 내 스튜디오 제공, 왕복항공료 지원, 생활비 일부 지급,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062-613-7132.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안희정 작 '노스화회집'



이정록 작 'The tree of life'

### 작가의 눈으로 본 자연의 의미

시안갤러리 8월 30일까지 '필름 속을 걷다'전

광주 시안갤러리는 20일~8월 30일 개성 강한 사진 작가의 눈에 비친 다양한 풍경을 선사하는 '필름 속을 걷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태·라규제·박일구·안희정·이정록씨가 참여한다.

김영태씨는 중국의 광활한 자연을 증명한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박일구씨는 풍경

으로서의 바다가 아닌, 삶과 인생의 의미가 담긴 바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또 라규제씨는 대숲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했고, 이정록씨는 신비로운 빛과 나무를 통해 영적인 느낌을 형상화했다. 문의 062-570-2334.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별간모자의 진실2 (전체)	2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3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	3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4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4관	풍산개 (18세)
5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5관	트랜스포머3 (12세)
6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6관	씨니 (15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8관	트랜스포머3 (12세)	8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
9관	트랜스포머3 (12세) / 쿠파팬더	9관	별간모자의 진실2 (전체)
10관	씨니 (15세)	10관	포인트블랭크 (18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b>최고급관</b>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
4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5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6관	포인트블랭크 (18세)
7관	씨니 (15세)
8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9관	트랜스포머3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
3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4관	트랜스포머3 (12세)
5관	별간모자의 진실2 (전체)
6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7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색깔있는 영화선택 \* w월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